

# 國際家族計劃 大會의

## 內容과 그 意義

국제가족계획협회 정 경 균

### 國際大會의 概況

「하나의 세계! 하나의 문제」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워커힐에서 국제가족계획연맹 서태평양지역 제1차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서태평양지역이 3년 전에 탄생을 본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가족계획 대회였으며 국내에서 열린 제1차 국제적 규모의 학술대회로서는 제일 큰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요르의 많은 귀빈과 의사, 간호원, 조산원, 기타 관계인사 모두 약 7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외국인 대표로서는 홍콩, 일본, 대만, 필리핀, 오끼나와, 싱가포르, 파키스탄, 터키, 씨른, 인도, 스웨덴, 캐나다, 미국, 베넬 등 14개 국으로부터 70여명이 내한하였다.

24, 25 양일 간은 우선 서태평양 지역 정식가맹국인 한국, 홍콩, 일본의 3개국 대표만이 모여 지역총회와 동지역 의사분과 위원회를 가져 각국의 예산심의와 사업보고 및 임

원개선이 있었으며 26일 아침 10시 드디어 막을 올린 본 학술대회는 연 3일 인구문제와 각국의 가족계획 사업현황발표 및 최신 피임법에 관한 임상연구 발표 등 20개 연제가 진행되었는 바 이 20개 연제 중 한국이 7명, 일본이 3명, 홍콩 3, 대만 2, 그외 다섯은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 초청된 연사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 盛大한 開會式엔 報道陳의

#### 물결 이튀

26일 오전 10시 이번 대회의 의장 역할을 맡아보신 본 협회 회장 김병선 박사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 개회식에서는 이어서 정일권 국무총리 특사(오원선 보건사회부장관 대독)와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장 「카타기리」 씨의 벅세지 낭독, 동지역 회장이신 「코야·요시오」 박사의 환영사로 간단히 마쳤거니와 약 30분간 진행된 본 개회식장엔 각 언론 및 보도기관의 보도진들이 연달아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로 장내를 수놓고 아울러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 국민

들에 대한 가족계획 계몽선전에 굉장한 성과를 올렸던 것은 크게 이로운 소득이라 하겠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은 1952년 처음 8개국으로써 창립을 보아 현재 38개국에 유럽지역, 서반구지역, 오세아니아지역 동남아시아지역, 인도양지역, 및 서태평양지역 등 6개지역으로 분할되어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니와 1950년 이래 급작스레 팽창일로에 있는 세계인구폭발의 문제는 지금 선후진을 막론, 세계 어느 나라나 똑 같이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 있으며 이 인구 폭발의 문제야말로 세계 공통의 대책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난망한 중대문제인 것이기에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그 의의를 한파디로 집약, 「하나의 세계, 하나의 문제」(One world, One problem)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계획 본래의 의미는 인구조절에 목적을 두었던 것은 아니며 동시에 오로지 인구조절만을 위한 운동이어서도 아니되고 본래의 의미인 모자보건에 그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이번 대회의 개회사에서 김명선 회장은 아직 가족계획을 일반보건분야에 포함시키기를 주저하는 나라가 있음을 나무라고 아울러 세계 각국이 가족계획을 보건분야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보다 낫은 생활의 기본 要件

1912년 「뉴욕」의 보건간호원 「마가렛·생거」여사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원치않는 아기의 출생을 막아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부르짖게 된 가족계획의 본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간에 시계의 초침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세계인구의 팽창은 한 가정의 경계로부터 국가의 경계,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안녕과 평화까지 위협하는 중대문제가 될으로써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출선하여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 가족계획 운동을 채택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가족계획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 1962년부터 이를 추진하고 있거니와 정일권 국무총리는 이번 대회에서의 축사를 통하여 이 점을 심분 강조하였던 것이다.

정총리는 그의 축사에서 「오늘날 격증일로에 있는 세계인구의 추세는 후진사회에 있어서의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고질적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이 심각한 사회성을 띠고 점차 국제적 연대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경고 하였다. 이어서 정총리는 「실로 인구의 증압은 후진국의 경제적 비약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

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관리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인구의 적절한 조절이란 전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거듭 지적하였던 것이다.

### 韓國 演士의 發表要旨

국내 연사로서는 제일먼저 보건사회부 묘자보건과 김택일 과장의 한국 정부의 가족계획사업현황에 대한 발표를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권이혁교수에 의한 대도시 서울의 인구조절에 관한 것과 다음으로 한국 능촌 인구 조절에 관하여 연세대 위생학교실 양재모교수가 그 양군에서의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의학분야에서는 서울 의대 산부인과장 신한수 박사의 자궁내장치 피임법에 관한 임상연구 발표와 동대학 비뇨기과의 이회영 박사에 의한 정관절제술에 관한 연구 발표, 그리고 수도의대 산부인과 홍성봉 교수에 의해 서울의 인공 유산 현황에 대한 연구발표와 연세의대 산부인과 극현모교수의 자궁내장치에 있어서의 조직화학과 자궁내막에 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 있어서 의학분야의 발표 내용과 토의중에는 근자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궁내장치 피임법(주로 루프)에 관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되었는바 각국 공히 이 루프에 대한 실험결과가 다같이 루프의 장점을 크게 인정하였으며 한국을 철단으로 홍콩,

대만 기타 여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루프의 장점에 대하여는 이미 국제가족계획연맹본부, 의사분과위원회에서 정식 인정, 가맹 각국에 추천한 바 있거니와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도 거듭 공인된 장점으로서는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 「루프」의 公認된 長點

① 성감(性感)에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아 자연스런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

② 남편의 이해 협력 없이도 확실하게 피임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경을 따로 쓸 필요가 없다.

③ 한번 장치하면 몇년이라도 계속하여 피임효과가 변하지 않는다.

④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⑤ 애기를 원할 때는 「루프」를 손쉽게 뺄으로써 다시 정상적인 임신 을 할 수 있다.

⑥ 「루프」 끝에 실오리가 있으므로 자기 자신 탈락 여부를 알 수 있어서 안정감을 준다.

⑦ 장치하는 데도 증폭의 방법과는 전혀 달리 자궁경구를 인공적으로 벌리지 않고 손쉽게 간단히 삽입하며 통증이 전혀 없다.

⑧ 삽입 후 한 두달은 월경량이 다소 많아지는 정도 이외에 모체에 해가 없으며 비영구적 피임법 중 임신률이 가장 낮은 방법이다.

이상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루프」에 대하여도 자궁내에 기구를 장치하므로써 이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이 많을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루프」 자체가 금속성이 아닌 탄력성이 있는 플라스틱제이므로 도체에 미치는 자극은 지극히 적다. 또 인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생리적으로 잘 적응하며 특별히 해로운 증상이 없다. 더욱이 루프를 삽입할 때 삽입시기(월경 끝나고 1일 내지 3일 이내)와 사용할 수 없는 금기증세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삽입하면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발생률은 최소한도로 지양할 수 있다.

부작용 중 흔히 볼 수 있는 증세는 월경지속일수가 며칠 더 연장되는 수가 있으며 또 소량의 자궁출혈이 계속될 때인데 이러한 증세는 삽입 후 대략 두번째 월경이 경과하면 없어진다. 또 루프가 자궁 내에서 올바른 위치에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 부작용으로서 경한 요통 혹은 출혈 등을 일으키게 되나 삽입만 제대로 하면 이런 증상은 거의 볼 수 없다. 루프의 삽입이 아주 수월한 것이므로 시술기관에서 의사가 없을시 훈련되지 않은 간호원이 적당히 삽입하므로써 가끔 이런 증세가 있기도 한 모양이다. 이 점은 주의를 요한다. 다만 국제가족계획연맹, 의사분과위원회에서는 훈련된 간호원이나 조산원은 이를 삽입하여도 좋다고 하였으며 한국의 의료법 상에는 조

산원의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정부나 협회로서도 조산원이나 간호원에 대하여 이의 시술 훈련을 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 日本에서는 콘돔을 애용

루프가 현재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더라도 피임을 목적으로 자궁내에 이물(異物)의 삽입을 금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콘돔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에 인공유산이 크게 유행했으나 이는 가족계획의 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인공유산이 도체에 미치는 해독이 크므로 해서 지금은 아주 줄어들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석했던 그 나라 의료계 종진들은 귀국과 동시 루프 장치를 위하여 의료법을 개정, 이를 보급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어쨌던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콘돔을 주로 사용하는 외에 그들이 연구 선전하는 월경주기법과 기초체온법도 크게 이용해왔으나 이 또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기 어려운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나 그런대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번 대회에 이 방면에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히로시·오기노」씨는 과거에 사용하던 기초체온법이 아침 기상과 동시 측정한다는 말하자면 일정시간에 매일 측정하여야 한다는 불편을 덜기 위해 어느 시간이나 측정해선 안될까 하는 새로운 연구를 진행 중임을 밝히고 우

선 지금 단계에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 낮이나 취침전이나 그 밖에 다른 시간에 측정하여 어느 정도의 정확치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에 그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피임을 위한 기초체온의 한 변법

“건강한 정상 여인의 기초체온(B. B. T. 매일 아침 기상시에 췌 체온)이 월경주기에 따라 변하며, 저온기간에서 고온기간으로 변할 때가 바로 배란기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자들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5분동안이나 체온을 재보는 일이 그리 용이한 건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편리한 아무 시간이나 췌 체온으로도 기초체온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느꼈다.

일차 조사 대상 114명 중 96명에서 기초체온의 2단계 체온 극선(biphasic change)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아무 시간이나 췌 체온을 조사한 결과 그중 73%가 기초체온과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이어서 2,590명을 대상으로 기초체온과 보통체온을 비교했다. 그 중 11%에서는 기초체온과 보통체온이 양자 일치하며, 59%는 보통체온이 더 낮고, 30%에서는 기초체온이 더 높았다.

그러면 어느 시간에 측정한 체온이 가장 기초체온과 유사한 곡선을 나타내는가를 알아보았던 바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아침시간(일어나서 세수할 때까지) 69%
  2. 낮 시간(세수하고나서 저녁때까지) 46%
  3. 자리들기전(일을 끝낸 다음부터 자리에 들때까지) 65%
  4. 자리에든 후(자리에 들어서 부터 잠들기까지) 78%
- 평균 63%

그러므로 기초체온을 재는 것에 불편을 느낄 경우 보통체온을 기록하드르셔도 70.4%의 여자에서 피임법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위에서와 같이 일본에서는 아직 월경주기나 기초체온법을 피임에 이용하는 일이 제법 비중을 차지하는 모양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결코 추천하러 하지 않는다. 각종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실패임신은 바로 이런 것을 피임법으로 믿고 쓰다가 실패의 쓴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 아세아지역의 인구문제

유엔(U. N.)의 집계에 의하면 1962년 대에 세계 인구는 31억 3천5백만에 이르렀다. 그 중 56%가 아세아에 있으며 인구 밀도는 아세아가 64명으로 둘째이요 유럽이 88명으로 최고이다. 그러나 다른 대륙에 비하여 아세아 여러 나라는 농업국임을 고려할 때 토지 넓이에 대한 생산력

관계로 따져 본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 1960년에 「에카페」 추산에 의하면 전 세계의 경지면적당 인구밀도는 207명이나 이를 다시 대륙별로 보면 아세아가 374명으로 단연 으뜸을 가고있다. 특히 일본은 1,535명에 세계에서 경지면적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며 한국이 1,225명으로 월명 다음으로 높다. 대개 세계 인구는 1950년 이후부터 부쩍 부쩍 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학과 예방의학의 발달로 기인한 영아사망률의 급강하 그리고 인간수명의 연장에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세계 인구는 매초에 약 2명의 생명이 새로히 탄생하여 년에 약 6천여만 인구가 이 지구상에 보태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인구도 매 23년마다 곱으로 팽창하고 있어 서기 2,000년초에는 벌써 우리 남한의 인구만도 자그만치 1억을 돌파하게 될 것인 바 이 좁은 땅덩이에 천문학적 숫자의 인구가 분비며 살아야 하는 별로 더지 않은 앞날에 닥칠 사회상이야말로 생각만 해도 끔서리나는 일이다.

### 한국의 가족계획

이와 같은 가공할 사태에 대비하여 한국에서도 이미 1961년 4월에 본 협회가 창립되고 1962년엔 다시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내에 도자보건과를 신설하여 가족계획을 전담케 하고 우선 가족계획 10개년 장기 계

획안을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수립, 이를 다시 제1차, 및 제2차 5개년 계획으로 분하였다. 이 장기계획안의 목표는 제1차 5개년 계획 말년인 1966년에 가서 착수 당시의 인구 증가를 2.88%를 2.5%로 뺄려고, 다시 제2차 5개년 계획 말년인 1971년에 2.0%로 떨어려는 계획 하에 세계적으로 가장 고무적인 가족계획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가족계획을 일컬어 이미 세계 유수의 신문에서 가장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논평하였으며 이번 국제 대회를 한국서 갖게된 것도 이와 관련하여 매우 의의깊은 일이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지하다시피 전국 시, 군, 구역에 설치돼 있는 전국 189개소의 보건소마다 가족계획상담실을 설치하고 각 보건소마다 훈련된 가족계획지도원 3명 내지 많은 곳은 10명씩 조산원 또는 간호원 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하여 전국에 723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한 전국 1,473개의 읍,면마다 각 1인씩의 가족계획 제공원 1,473명을 배치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가족계획 제공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읍, 면에 배치된 가족계획요원의 임용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으로 20세 이상인 여성에 두었던 바 현재 이 읍, 면 가족계획요원 중에도 약 16%는 간호원 또는 조산원 자격자가 포함돼 있으며 되도록 자격증 소지자를 환영하고 있어 앞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가족계획 관계 요원으로 는 자궁내장치(루프)시술의사 1,200 명과 정관절제술 시술의사 523명, 그 리하여 도합 3,930여명의 일선요원 과 자 시도정 보건과 내의 가족계획 계에 종사하는 실무담당자 등 불소 한 인원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직과 요원을 통하여 정부에서는 「루프」와 정관절제술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누구에게나 무료 로 시술하는 외에 콘돔, 발포성 정 제, 제리를 또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작년 5월부터 보급한 루프는 이미 작년 말까지에 11만, 가입여성 에게 이를 보급하고 정관절제술도 사업시작 이래 6만여명에게 시술하 였다. 금년 부터는 정부에서 매년 루 프 30만명과 정관절제 2만씩을 무료 로 시술하고 콘돔, 정제, 제리도 계 속사용자 30만을 확보할 계획으로 전국에 퍼고 있다. 이같이 하여 루 프 100만을 1967년까지 보급하고 정 관절제도 매년 5만씩 계속 20만을 달성하고 재래식 기구약품 계속사용 자 30만을 확보하여 정부의 인구 자 연증가률 경감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인 바 루프는 국민들로부터 개호평 을 받고 있어 이와 같은 목표는 오 히려 훨씬 기간을 앞당겨 달성할 것 이 거의 확실한 실정이다.

#### 今次 國際大會의 結實

이번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얻은 결실은 크게 얘기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상싶다.

다음으로 이번 지역 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지금까지 매년 일본 동경 에서 개최해 오던 가족계획 국제의사 훈련을 1966년부터는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된 점이다. 이와 같은 결 의가 가능하였던 것은 한국이 가족 계획분야에서 보고 듣고 배울 것이 많으며 또 훌륭한 강사요원이 확보 돼 있다는 것이다. 가족계획 역사가 짧은 (불과 3년) 기간이었음에도 이 러한 눈부신 결실을 얻었다는 것 은 정말 놀랄 만한 일로서 이는 불 른 가족계획 종사자의 성의에 찬노 력의 결정일 것이며 또한 80% 이상 의 국민이 문자를 해독한다는 높은 수준이 그 원인이 될 것이다. 교육 수준과 가족계획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많은 의국의 저명학자와 관계 권위인사가 한국의 가족계획 현황을 목격하고 크게 경탄, 세계적 으로 높은 평가를 얻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중 15년 이상의 가족계획 역사를 가진 인도로부터의 대표 15 명과 파키스탄, 씨론의 대표들을 대 상으로 가족계획교육을 한국 강사진 에 의하여 실시한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절차가 마치는 대로 동남 아 가족계획요원 훈련센터를 한국에 세울 계획도 추진되고 있거니와 한 국의 가족계획이야말로 세계의 주목 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 모두 관계 분야 인사의 열렬한 협조로 이루어 졌음을 밝혀둔다.